

# 광주 소비자물가 최근 10년간 16.7% 뛰었다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농축수산물 34.4% 급증...식품도 29.6% ↑ 경기침체에 최근 2년간 물가 크게 상승...전기 등 공공분야는 하락

최근 10년간 광주와 전남지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7%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상승률은 적지만, 코로나19 사태와 경기침체가 겹친 최근 2년간 물가가 크게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호남지방통계청이 28일 발표한 '최근 10년간 (2012~2022년) 광주·전남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광주 소비자물가지수는 107.78 (2020=100)로 10년 전인 2012년과 비교해 16.7% 올랐다. 전국 평균 상승률 17.3%와 비교하면 0.6% 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10년간 연평균 상승률은 1.6%에 그쳤지만, 2021년과 2022년 2년 간 상승률은 각 2.6%와 5.1%로 7.8%에 달했다.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는 10년 새 16.6% 올랐다. 그 중 식품은 29.6% 상승했고, 식품 이외 품목은 10.4% 올랐다.

식품 중 껌(114.8%)과 수입소고기(80.2%), 오이(86.6%) 등이 크게 올랐고, 식품 외 품목에서는 하수도료(80.2%), 담배(77.4%), 공동주택관리비(62.0%) 등이 상승했다. 어패류, 채소, 과일 등 신선 식품은 10년 전과 비교해 28.1% 뛰었다. 갈치(70.9%)와 오징어(65.0%), 굴(57.3%)을 비롯해 미나리(110.7%), 열무(88.45%), 바나나(62.7%), 굴(60.5%) 등이 대표적인 상승 품목이다. 이밖에 품목성질별로 보면 전·월세는 11.1% 올랐고, 택시비는 36.0%, 시내버스비는 12.5% 상승했다. 학원비도 중학생은 34.2%, 고등학생 29.9%, 초등학생 17.3% 올랐다. 반면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 분야는 4.0% 내렸다. 같은 기간 전남지역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8.43(2020=100)으로 2012년 대비 17.3% 올랐다. 2021년 2.6%, 2022년 5.7%로 최근 2년간 상승률이 8.4%나 됐다. 생활물가지수는 10년 전과 비교해 17.3% 올랐다. 식품은 31.0%, 식품 이외는 10.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신선 식품지수는 26.3% 상승했다. 대표적인 상승 품목을 보면 식품 중에서는 오징어(106.8%), 수입소고기(70.0%), 무(68.6%), 조개(40.4%), 마늘(62.7%) 등으로, 식품 이외에서는 하수도료(236.5%), 담배(77.3%), 목욕료(37.3%) 등이었다. 전·월세비는 10년 사이 9.3%가 상승했고, 택시비는 36.1%가 올랐다. 시내버스비는 32.5%, 시외버스비는 18.5% 올랐다. 학원비 관련 품목지수도 중학생 29.3%, 초등학생 27.8%, 고등학생 24.9% 각각 상승했다. 전기·가스·수도는 전체적으로 2.4% 내렸는데 도시가스(-14.6%)의 인하 폭이 큰 결과로 분석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도교 선물용품 잡화 전시회' 광주상의, 참가 기업 모집

4월5일까지...참가비 등 지원

광주상공회의소는 광주시와 공동으로 오는 4월 5일까지 '2023 일본-도교 선물용품 잡화 전시회'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전 세계 3만5000여명이 방문하는 일본 종합소비재 산업 최고의 전시회다. 오는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 도쿄 빅사이트 전시장에서 열린다. 다양한 국가에서 520여개 기업이 참가하는 이번 전시회는 식품류, 선물용품, 패션 액세서리, 플라워상품, 향·아로마, 헬스·뷰티 등 모든 식품과 선물용품, 소비재 잡화가 전시된다. 다수의 국내 기업들이 전시회에 참가하여 자사 제품을 전시하고 바이어들과의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시회 참가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되면 전시회 참가비의 80%, 참가자 항공료의 70%(최근 3년 이내 참가기업은 50%), 바이어 상담을 위한 통역료 100%, 편도 물품 운송료 100% 등을 지원받게 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광주상의 홈페이지 공지사항(<http://www.gjcci.or.kr/>)에서 참가신청서류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과 팩스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농협전남본부, 상호금융 사업추진 방향교육

금융소비자보호 현장 선포

농협 전남본부(본부장 박종탁)는 농협상호금융 사업지원본부와 연계해 지난 27일 '2023년 상반기 상호금융 사업추진 방향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이번 교육은 전남·광주 농협협 신용상무 158명을 대상으로, 농협이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신속히 대응하고 차세대 디지털 금융을 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미래성장 동력을 위한 디지털 혁신으로 경쟁력 확보 ▲지역 중심 사업지원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사업별 추진 방

향 등 중점 추진사항 위주로 구성됐다. 한편 이날 전남농협은 '상호금융업권 소비자보호법' 적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현장'을 선포했다. 교육생들은 디지털 금융 플랫폼 'NH뱅크'의 전국 가입자수 1000만명 달성을 자축하며, 농업인과 고객,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초일류 상호금융 구현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종탁 본부장은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혁신은 필수다"라며 "농협은 경쟁력 제고로 농촌과 지역사회 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농협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광주테크노파크, 중국 요녕성 심무개혁혁신시범구와 투자 유치 협약

진출 희망 기업 현지답사 진행 등

광주테크노파크는 최근 중국 요녕성 심무개혁혁신시범구 관리위원회와 광주기업 유치 및 투자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광주의 주력산업인 모빌리티 의장·전장부품산업, 스마트 부품산업, 생체 의료 소재·부품산업과 심무시범구의 6대 산업인 인공지능, 친환경 신에너지 등 산업의 과학기술과 인재 등의 자원을 교류하기로 했다. 또 이후 중국 요녕성 진출을 희망하는 광주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심무개혁혁신시범구에 적극 초청해 현지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요녕성 심무개혁혁신시범구 관리위원회는 살균수 제조장치 등을 제조하는 광주 ㈜제이디와 심무개혁혁신시범구 투자유치 및 현지진출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김영집 광주TP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 지역 내 우수기업의 동북아시아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이후로도 실질적인 수출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광주조달청, 상반기 조달사업 2조5000억원 집행

연 목표액 65% 수준

광주지방조달청은 올 상반기 조달사업 연간 목표액(3조8252억원)의 65% 수준인 2조5000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광주지방조달청은 조달사업 신속 집행을 위해 전담반을 편성해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23일에는 지역 내

20여 개 주요 기관 계약담당자를 초청, 재정 신속 집행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조달기업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각종 불편, 부담을 뜻하는 '그림자규제'에 대해 지난 22일 200여 개의 지역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추가 규제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아울러 혁신성과 기술력이 뛰어난 지역중소기

업들이 혁신제품, 우수조달물품 등으로 공공조달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배성 광주지방조달청장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조달청이 가지고 있는 공공조달의 구매력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며 "민·관이 힘을 합쳐 경제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줄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